

# 광주·전남 과학기술 소외 심화

연구개발인력·예산, 논문·특허 출원·등록 등 전국 최하위

광주·전남지역의 연구개발인력 수와 연구 예산 등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과학기술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연구개발 토대가 부실하다 보니, 과학기술논문인자지수(SCI)급 논문 발표와 특허 등 성과도 미비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2010년 지역별 과학기술 역량과 연구개발 추진현황을 수록한 '2011 지방과학기술연감'에 따르면 전남의 연구인력은

수는 6327명, 광주는 1만1464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각각 14위와 11위를 기록했다.

서울에 전국 연구인력의 33%가량인 11만4800여명이 몰려있고, 대전(2만5000여명), 충남(1만7000여명)의 순으로 연구인력이 많았다.

또 시·도별 총연구개발비는 광주 5209억원(11위), 전남 4826억원(14위) 수준에 머물고 있고,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도 광주 3146억원(전국 대비 2.4%), 전남 1993억원(1.5%)에

그쳐 여전히 소외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과 돈이 부족하다 보니, 전남 지역의 SCI 논문 발표 건수도 570편(15위)에 그쳤고 논문이 다른 연구자들에게 인용되는 피인용 횟수도 논문 1편당 평균 0.69로 전국 최하위였다.

광주는 그나마 SCI급 논문 2,375편(6위)을 발표했고, 피인용 횟수도 1.08을 기록했다.

또 특허출원과 등록도 미비해 광주는 출원 2,203건(12위) 등록 921건에

그쳤다. 광주는 최근 4년간 특허출원 건수가 연평균 1.7% 감소했고 등록 건수는 연평균 12% 줄어드는 추세다.

전남도 특허출원 1651건(14위), 등록 610건에 머물러 최근 4년간 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연간은 이달 말부터 공공기관과 주요 도서관에 책자로 배포되며, 국과위 홈페이지(www.nstc.go.kr)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오풍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 투자 24개기업 405명 채용

### 도내 15개 기관·21개 대학 인력채용 지원

전남도와 순천대 등 전남지역 유관 기관과 대학들이 전남에 투자한 기업들의 인력채용에 공동으로 나섰다.

전남지역 15개 기관과 21개 대학은 최근 전남도에서 고용지원원의회를 개최하고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불일치(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도내 투자기업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전남도와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내에 투자한 24개 기업의 사무·생산직 405명의 신입 및 경력자원 채용 공고에 들어

간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로 기업별 모집요강에 따라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거쳐 6월까지는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남도청 기업유치과(061-286-5120~7)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shj00210@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 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www.job.jeonnam.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봄나물 기내식 맛 보세요** 아시아나항공이 1일부터 한 달 간 한식을 제공하는 중·장거리 노선 전 라인에 다양한 봄 채소 기내식을 선보인다.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전복삼합찜을 곁들인 봄채소 비빔반상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족연금 지급 대상 19세로 1년 확대

이번달부터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19세 미만까지로 1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유족연금이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돼 왔으나 학업 기간 등을 감안한 개정 국민연금법의 시행에 따라 이같이 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9세 미만은 개정 민법의 미성년

연령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족연금 수급자는 44만명이며, 월 평균 급여액은 23만원 수준이다. 유족연금 자녀 수급자는 전체의 2.4%인 1만569명이며 평균 월액은 21만9000원이고 평균 73개월간 지급받고 있다.

/연합뉴스

## 롯데그룹 35년만에 심벌 교체

롯데그룹이 35년만에 심벌을 교체한다.

1일 롯데에 따르면 그동안 동근원 안에 영어 대문자 'L' 3개를 겹쳐 물결 치는 형상을 한 쓰리엘(3L) 마크를 심벌로 사용했으나 이달부터 롯데의 영문 표기인 'LOTTE'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임직원들은 워드마크 형태의 'LOTTE'가 새겨진 배지를 달게 된다.

사기(社旗)도 교체된다.

새로운 배지는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롯데가 진출한 모든 나라에서 같이 사용된다.

롯데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와 유럽 등으로 글로벌 사업이 확대되면서 세계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징이 필요해 심벌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전 심벌 마크는 한국과 일본 롯데가 서로 다르게 사용했다.

롯데는 계열사별로 상이한 CI(Corporate Identity)도 동일한 형태로 통합한다.

/연합뉴스

**LOT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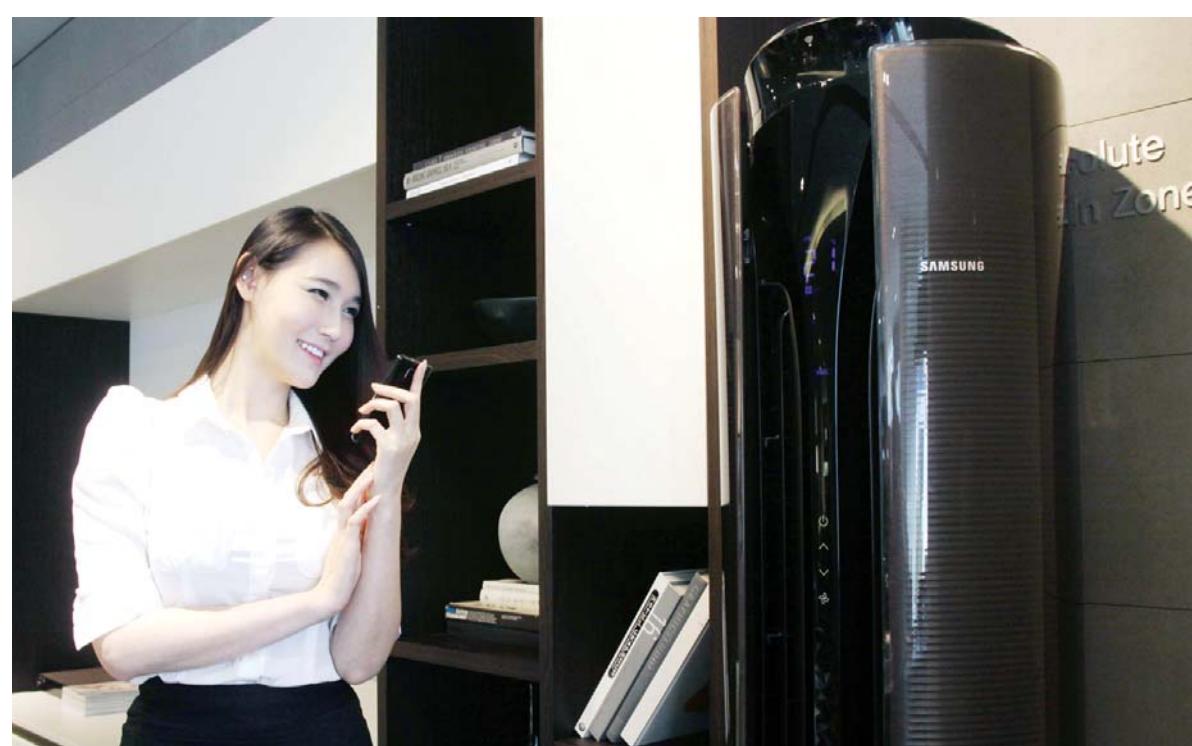
롯데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와 유럽 등으로 글로벌 사업이 확대되면서 세계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징이 필요해 심벌을 변경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임직원들은 워드마크 형태의 'LOTTE'가 새겨진 배지를 달게 된다.

사기(社旗)도 교체된다.

새로운 배지는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롯데가 진출한 모든 나라에서 같이 사용된다.

/연합뉴스



### 음성 인식 에어컨 출시

삼성전자가 스마트 TV에 이어 에어컨 전용 음성인식 리모컨을 갖춘 스마트에어 컨O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하며 스마트 에어컨 바람 물이에 나섰다. 기존 2012년형 스마트에어컨Q는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히 업데이트 하는 것 만으로 음성 제어 사용 가능하다.

/연합뉴스

## 광주 광공업 생산 넉달만에 증가

### 2월중 10.2%↑…10개월만에 두자릿수 늘어

지난 2월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이 10개월 만에 두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2월 중 광주·전남 광공업 생산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광공업생산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0.2% 늘어 4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광공업생산이 전년 대비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것은 지난해 4월 17.8% 이후 처음이다.

SUV형 승용차, 소형트럭 등 자동차

(24.5%), 고무 및 플라스틱(21.3%) 등의 증가에 힘입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25.6%), 담배(-58.2%), 전기장비(-13.3%)는 감소했다.

출하도 자동차(28.1%), 고무 및 플라스틱(25.2%) 기계장비(21.0%) 등은의 호조로 전년 동월보다 15.2%나 증가했다. 재고는 1차 금속(56.9%), 고무 및 플라스틱(20.9%) 등의 증가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4.0% 증가했다.

2월 중 전남지역 광공업생산은 전

년 같은 달에 비해 7.2% 증가했으나 전달에 비해서는 3.4% 감소했다.

생산은 철강유조선, 화물선 등 기타운송장비(73.5%)와 금속가공(25.4%), 화학제품(4.7%) 등이 증가했고 식료품(-20.4%), 석유정제(-1.9%), 1차 금속(-0.4%)은 감소했다.

출하도 기타운송장비(72.5%), 금속가공(47.4%)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 대비 9.2% 증가했다. 재고는 나무제품(348.2%)과 고무 및 플라스틱(46.9%) 등이 크게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나 급증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금호산업 신임 사장

### 대우맨 원일우 선임

금호산업(금호

건설)은 지난 30

일 이사회를 열어

원일우(55·사진)

전 대우건설 부사

장을 대표이사 사

장으로 신규 선임

했다. 원 사장은 신일고와 서울대 건

축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대우건설에 입사해 건축사업본부장·개발사업본부장 등을 지냈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은 기초 총괄사장과 원일우 사장 제체로 조직을 개편, 국내 및 해외사업 영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박정숙기자 jwpark@

3월 23억 달러…무역수지 두달 연속 흑자

한편 3월 대미 무역수출 59억4000만 달러, 수입 39억9000만 달러로 19억 5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지식경제부는 3월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1.4% 감소한 473억 달러, 수입은 1.2% 감소한 450억 달러로 기록하며 23년째로 흑자를 냈다고 1일 밝혔다.

1월에는 20억 달러 적자로 24개월 만에 적자세로 돌아섰으나 2월에 22억 달러 흑자를 내며 적자 탈출에 성공한 바 있다. 3월 흑자로 올 1분기 누계 무역수지는 16억 달러의 흑자를 냈으며 35개월째로 흑자를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년 동월보다는 수출과 수입이 소폭 줄어 각각 1.4%,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월 대미 무역수출 59억4000만 달러, 수입 39억9000만 달러로 19억 5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한국은행은 지난 30일 이사회를 열어 원일우(55·사진)

전 대우건설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

장으로 신규 선임

했다. 원 사장은 신일고와 서울대 건

축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대우건설에 입사해 건축사업본부장·개발사업

본부장 등을 지냈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은 기초 총괄사장과 원일우 사장 제체로 조직을 개편, 국내 및 해외사업 영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박정숙기자 jwpark@

## 롯데홈쇼핑 3월 31일 방영상품

### “㊗ 오픈”

[문화전당집] 062) 512-5003 [서광주점] 062) 375-4415 [매월집] 062) 655-6552

###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 062) 228-6644

● 입점가능장소: 광주·전남·롯데마트 및 로드샵

### 일본

롯데홈쇼핑 3월 31일 방영상품

초특가 북큐슈 일주 3일

3월 1일 부터 4/11, 12, 14, 16, 18, 19, 21, 23, 25, 26~

● 하마다 리먼시티, 디자이후 천만점, 캐슬리터, 벚꽃봉오기, 이소산

마츠아마 오쿠도고 온천 자유여행 3일/4일

529,000 원 부터 4/20, 22, 24, 27~

● 4명이상 5% 할인·8명이상 7% 할인

후쿠오카 베트 “아마구치 온천” 4일

499,000 원 부터 5/2 5단계 출발

● 디자이후 텐만점, 캐슬리터, 이카이신산, 아카요사이다이 등

● 일본 전상품 유류할증료 볼포함